



창작집단 H8E는 2024년에 창단되었으며
연극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공연 예술 단체이다.
현대사회와 인간, 존재, 우주, 미래를 소재로 삼아 텍스트, 사운드,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증을 탐구하면서 그 속의 인물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본다.
또한 극을 전개하는 방식을 퍼포먼스, 사운드, 미디어를 활용해,
보다 감각적으로 느끼게끔 방법을 모색, 실험하고 발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북은 공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기획·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집단 H8E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수정,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창작집단 H8E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h8e.move@gamil.com



의식적 정화
CONSCIOUS PURIFICATION

극작·연출
임주영(이반림)

예술공간 해화
2025.07.11(Fri.)-13(Sun.)

주최·주관
창작집단 H8E

후원
협동조합 아트컴퍼니 드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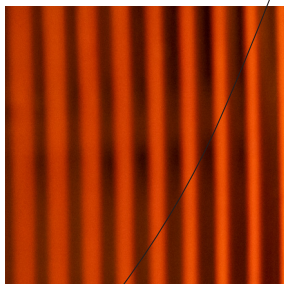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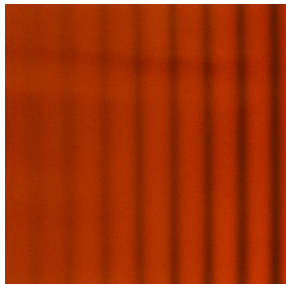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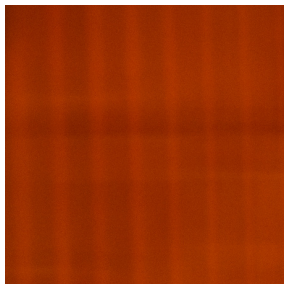
Page	01	프로그램 소개 및 단체소개
Page 02	03	공연 소개
		목차
Page 04	05	‘의식적 정화’ 속 키워드 공연 의도
Page 06	07	작품 소개 및 시놉시스
		출연진
Page 08	09	극작·연출·배우 임주영(이반림) Interview
Page 10	11	무대 소품 스케치
Page 12	13	작품 이해 돕기 - 극작가 구지수의 글
Page 14	15	관객 리서치와 참여QR코드 만드는 사람들



까마귀 극의 핵심 오브제인 까마귀는 죽음과 불길함의 상징으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주인공 림과 닮아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까마귀는 소외되고 경계받는 인물들의 자화상이자, 관객이 외면해온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촉매다. 까마귀 사체는 예술과 생명, 기록과 윤리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는 장치이며, 그것을 마주한 인물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관객에게 도덕적 질문을 던진다

박제 이러한 상징은 결국 사체와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인 박제로 이어진다. 사체는 생명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박제를 통해 인간은 그 죽음을 다시 '소유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한다. 박제 채색 작업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생명을 객체화하고 상품화하는 행위로서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림이 이 작업을 수락하는 순간, 예술과 생존, 윤리와 욕망 사이의 균형은 무너지고, 관객은 그 파편 속에서 진정한 '정화'의 의미를 발견한다.

검은색 검은색은 극 전체의 정서적 배경을 형성한다. 까마귀의 색이자, 림이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색이기도 한 검은색은 단순한 부정성의 상징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색이 겹쳐진 결과로서의 복합적인 감정, 덮고 감추려는 욕망, 그리고 불안정한 정화의 끝을 의미한다. 은이 "검은색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장면처럼, 검은색은 불확실한 미래와 내면의 불안을 상징하며, 그 깊이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감정의 층위를 드러낸다.



시놉시스

림은 갑자기 등장한 까마귀 사체를 보고, 자신을 투영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를 오가는 말들 속에서 자신을 냉정히 보려 애쓴다. 말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여부를 계속해 확인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며, 반복된 행동과 리듬 속에서 의식적 정화를 이행한다.

연출의 말

《의식적 정화》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경계 지대에서 비롯된 개념적 탐구를 시도한다. 감정이라는 주관적 경험이 반드시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 즉 감각이 침묵하는 순간에 인간은 본능이라는 보다 원초적인 인식의 층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 객관에 가까워지는 태도는 자기 인식의 선명성을 가능케 하며, 이는 곧 무대 위 배우의 감정적 반응과 그 변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연기는 고정된 결과물을 재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신체적 직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수행 행위다. 정해진 틀보다 매 순간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창작의 본질에 가깝다고 보며, 이러한 접근은 특히 라이브 페인팅과 같은 비정형적 표현과 결합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를 전제하지 않는 이러한 실천은 예술이 지닌 위험성과 실험성을 전면에 드러내며, 그것이야말로 본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정화의 윤리적·미학적 의미다.

《의식적 정화》는 창작집단 H8E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앞으로 H8E는 구성원 각자의 서사를 기반으로 무대의 서사적·형식적 경계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적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Director's Note

Conscious Purification_ engages in a conceptual investigation situated at the threshold between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Emotional experience, as a subjective modality,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access to truth. Rather, it is in the stilling of emotion—when sensation recedes—that the human subject may arrive at a more primal epistemic stratum: instinct. Within this framework, a disposition toward objectivity allows for heightened self-definition, offering a theoretical grounding for the actor's affective responses and their moment-to-moment variations on stage.

Performance, thus conceived, is not the replication of a predetermined outcome but a dynamic act of embodiment that emerges in the interplay between affect and corporeal intuition. Unpredictability is not a flaw in this context, but a constitutive element of creation itself. This approach becomes particularly salient when paired with indeterminate forms such as live painting, where the absence of narrative fixity further foregrounds artistic risk and temporal contingency.

Such practices, which proceed without the assurance of resolution, expose the intrinsic vulnerability and experimental nature of art-making. It is precisely in this exposure that the project locates the ethical and aesthetic dimensions of purification. Conscious Purification_ marks a new point of departure for the creative collective H8E. Moving forward, the group will continue to pursue performative inquiries that reconfigure the narrative and formal boundaries of the stage through the diverse, authorial perspectives of its members.



CONSCIOUS PURIFICATION

WORDS
NOISE
RHYTHM

의식적 정화

예술공간 혜화

ARTSPACE HYEHWHA, 10-3 HYEHWHA-RO, JONGNO-GU, SEOUL

JULY 11/ PM.7:30-12, 13/ PM.3

극작·연출 임주영(이반림) | 조명 감독 허보은 | 조명 오퍼레이터 김진영 | 음향 감독 김아란 | 사운드·그래픽 디자인 장하영 | 리서치 김진영 장하영
촬영 최지록 | 출연진 임주영(이반림) 박예음 이한울 | 주최·주관 창작집단 H8E | 후원 협동조합 아트컴퍼니 드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70.8065.0561 | 예매 **NOL**ticket



작품 소개

《의식적 정화: 진실이라 믿던 것들의 거짓말》은 예술과 생명, 기록과 상업, 도덕성과 자기 정당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윤리적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감정적·철학적 충돌을 다룬 심리 실험극이다. 이 작품은 형식 실험과 고밀도의 심리 묘사를 결합하여, 시각 예술과 무대 예술, 그리고 삶과 허상 사이의 경계를 탐색한다. 극작가는 단순한 주제 전달이 아니라, 관객 스스로가 불편한 질문에 마주하도록 하는 '경험의 구조'를 설계한다.

작품은 림의 작업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 공간은 실재와 가상이 중첩되는 장소이자, '객관의 공간'이라는 장치로 인해 현실과 허상의 감각이 지속적으로 교란된다. 무대 하수에 위치한 관람용 의자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시선을 뒤섞으며, 배우의 움직임은 카메라를 통해 송출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게 된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러한 무대 구성은 예술의 윤리, 감정의 진시, 개인적 진술이 사회적 판단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무대 그 자체로 구현해 낸다. 주요 인물인 림, 은, 비바는 각각 다른 가치와 윤리적 태도를 상징한다. 림은 예술가로서의 자기 연민과 생존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모순과 타협을 드러낸다. 은은 내면의 윤리적 기준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반복적인 바닥 닦기와 관찰자적 위치를 통해 "닦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던진다. 비바는 현실과 생존의 논리를 대표하며, 돈과 의미, 실용과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말을 던지는 인물이다. 이 셋의 상호작용은 예술을 둘러싼 다층적인 논쟁과 감정 구조를 압축해 표현한다.

극은 형식적으로도 매우 실험적이다. 조명의 형태는 인물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반복되는 음향은 심리적 리듬과 불안을 환기시킨다. 림이 관람용 의자에 앉거나 작업을 멈추고 주저앉는 장면은, 한 인간이 사회적 시선과 내면적 윤리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극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후반부에서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고, 림이 '세수'라는 상징적 정화 의식을 수행하며, 마지막엔 사라진다는 장면은 관객의 감정을 압도하며 정화, 혹은 삭제된 감정의 무게를 묵직하게 남긴다. 이 작품은 단지 상징과 은유로 무장한 텍스트가 아니라, 관객과의 긴장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되돌려주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설자 없이도 배우들의 행위와 침묵, 카메라와 조명, 오보제와 소리의 이어가 하나의 복합 언어로 작동하며, 현대 사회의 모순과 감정의 파편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실험성과 예술성, 형식과 내용, 윤리와 미학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충돌하며 공존하는 이 극은, 동시대 예술극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의식적 정화》는 결과적으로 관객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무엇이 옳은지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오염되고, 타협되고, 흔들리는지를 보여준다. 정화란 무엇인가? 지우는 것인가, 다시 칠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 림이 마지막에 그린 그림은 결국 '검게 보이는 색'이다. 그것은 수많은 색이 겹쳐진 결과이며, 동시에 본질을 감춘 위장이다. 이 희곡은, 우리가 오늘 어떤 감정을, 어떤 판단을, 어떤 삶의 태도를 채색하며 살아가는지를 묻는 하나의 철학적 무대이다.

임주영 (이반림)

연극 <갈매기> <공란>
<희의 간극> <더 나은 휴머니티> <의식적 정화>
다원예술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 외 다수

박예음

연극 <더 나은 휴머니티> <의식적 정화>
뮤지컬 <눈물의 길>
<IT;THAT> <FAME>
<침묵의 나선> 외 다수

이한울

연극 <덴마크의 백성들>
> <스크립트> <희의 간극> <더 나은 휴머니티>
> <의식적 정화> 외 다수

작품의 중심 사건은 까마귀 사체 채색 요청서가 도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화된다. 생명체의 사후를 기록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이 요청은, 죽은 생명을 박제하고 상품화하며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록 욕과 소유욕,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림은 이 작업을 수락하면서 고통받고,
은은 반대하며 좌절한다. 비바는 그것이
현실적 생존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이 삼각 구도는 '정화'란 무엇인가, '기록'
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보존'과
'왜곡'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복합
적인 물음을 만들어낸다.

의식적 정화는 객관성의 확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임주영(이반립)

A. 예술과 윤리: 창작의 타당성과 모순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는 장면은, 예술이 생명을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폭력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윤리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은 윤리적 모순 위에 선 예술가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폭력성과 정당성 사이를 유예시켰습니다. 채색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죽음을 가시화하려는 충동이자 그 순간 윤리를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중성을 관객이 직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술을 통한 정화라는 개념은 자기 정당화의 방어기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술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뢰하시는지, 혹은 일정 부분 의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치유는 종종 너무 쉽게 소비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예술이 정화를 '제공' 한다기보다는, 정화를 '요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구원이 아니라 거울에 가깝고, 그 안에서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치유인지 회피인지는 항상 의심하며 작업합니다.

극 중 림은 "생명엔 값이 없지만, 우리엔 값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진술은 예술이 현실적인 생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출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림의 고백이자 자책입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면 언덕, 그 생명을 이용해 살아가야만 하는 예술가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저 역시 예술을 생존의 수단이 아닌 것이라 여기지만 직업상 수단으로 삼고 있기에, 이 문장은 제 작업의 숨겨진 동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박제 채색 작업은 관점에 따라 예술이자 폭력으로도 해석됩니다. 예술을 통해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시도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존'은 언제나 권력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누가 남길 것인가에 따라 그것은 폭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술이 그것을 결정할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작업은 그러한 불편함을 예술의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B. 존재와 정체성: 이방인, 고백, 자기 연민

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사회적 이방인으로 규정합니다. 연출님께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극에서 '이방인'은 단지 국적이나 문화적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감정의 주변화, 존재의 소외를 상징합니다. 림이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보이더라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저에게 일종의 감정적 채류기 같은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며 가장 자주 도달하게 되는 정서적 상태, 즉 중심 어딘가에서 밀려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화해야하는 자의 위치 같은 말입니다.

림은 '이방인'으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의 틀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말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타자라는 고백이기도 하구요. 이 극은 그러한 '타자들의 연대'가 과연 가능한가,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이 극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가치를 중시에 두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가성은 어떤 서사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극 중 모든 인물을 철저하게 '양가적인 존재'로 그려려 했습니다. 자기 확신도, 완전한 회의도 없는 인물들. 이 양가성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감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동시에, 어딘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비슷한 욕망을 숨기고 있죠.

림은 예술가로서의 이상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생존의 절박함에 일부 달아나고, 온은 윤리적 절대성을 말하면서도 결국 침묵 속으로 물러섭니다. 비바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정한 동기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양가적 구성은 단순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관객이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 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극은 인물의 일관성이 아닌, 흔들리는 정체성과 모순되는 감정 속에서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가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비판하면서도 반복하고, 반성하면서도 타협합니다. 그 진자 운동이야말로 극이 말하고자 하는 '존재의 구조'입니다.

림은 관객 앞에서 고백을 시도하며 정화를 꾀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림의 정화는 결국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는 정화라는 개념을 항상 '완성 불가능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림의 사라짐은 완성된 정화가 아니라, 그 도달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고백은 일종의 '시도'일 뿐이며,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거나 마음이 씻겨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극 중 림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고백하고, 그것이 자기 구원의 방식이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 고백은 다른 방식의 잔여로 남습니다. 정화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흔적의 시작'이라면, 림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멈춘 것도 아닙니다.

관객이 림의 사라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화는 실패로도, 혹은 정지된 구원의 사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림이 자신을 감추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견디며 그 불완전한 시도를 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용기 자체가 정화에 가까운 어떤 상태라고 믿습니다. 이어 말하자면, 이 극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채로 남을 수 있는 용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는 장면은, 예술이 생명을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폭력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윤리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은 윤리적 모순 위에 선 예술가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폭력성과 정당성 사이를 유예시켰습니다. 채색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죽음을 가시화하려는 충동이자 그 순간 윤리를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중성을 관객이 직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C. 언어와 침묵: 말하지 않음의 미학

《의식적 정화》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시각적 상징과 반복 행위로 치환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언어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어는 한계를 내포한 매체입니다. 특히 감정, 죄책감, 상실, 불안, 자기 기만 같은 복잡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단순화되거나 타협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늘 언어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지워버린다'는 감각을 가지고 작업해 왔습니다.

본 극에서는 그 언어의 공백을 시각적 상징과 반복적 행위가 메우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닮고, 다시 칠하고, 지우고, 다시 보는 것, 이 일련의 루틴은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감정의 잔향을 관객에게 체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반복은 서사와 감정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말은 시간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지만, 행위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놓고, 멈추게 합니다. 관객은 말보다 행위에 더 오래, 더 깊게 머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관객에게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언제나 '누구를 위해 구성된 것'이지만, 침묵과 행위는 '스스로를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설명하지만, 침묵은 마게 합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림은 추상화를 그림으로써 '말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이는 감정의 회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한 시도로 보아야 할까요?

림의 '말하지 않기'는 회피이자 저항이며 동시에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책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론 언어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림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말하는 자'로서의 위선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시각화하려 합니다. 추상화는 명확한 설명을 지우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림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란 본래 모호하고, 변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감정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말이 아니라 '형태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림이 선택한 추상은 감정의 잔향, 감정의 혼들림을 담는 일종의 시도입니다. 언어가 가지 못한 자리, 거기서 그림이 시작됩니다.

은은 계속해서 닮고, 비바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침묵과 소음 사이에서 예술은 어느 위치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과 비바는 각각 '침묵의 윤리'와 '말의 집착'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둘은 말을 간소화 하지만 그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손으로 감당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믿는 인물이며, 닮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자 합니다.

반면 비바는 계속 말함으로써 현실을 붙잡고자 하는 자입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판단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홍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이 두 인물 사이에서 림이 위치한 자리, 그리고 이 극이 선택한 예술의 위치는 '사이'입니다. 예술은 결코 침묵도 아니고, 완전한 언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려다가 멈추는 혼들림이고,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떨림입니다.

저는 예술이 그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침묵이 되어 말에 저항하고, 말이 되어 침묵의 구조를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은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말 이후의 감각을 제안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일부로 '말하지 않은 시간'을 길게 배치하고, 그 공백 속에서 관객이 느끼게 두었습니다.

결국 예술은 완전히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침묵할 수도 없는 감정들의 잔존 공간입니다. 그 어딘가, 언어와 침묵 사이의 끊임없는 진자 운동. 그것이 제가 믿는 연극의 미학입니다.

D. 관찰과 시선: '객관의 공간'이라는 폭력

무대 위의 '객관의 공간'은 관찰과 피 관찰, 통제와 노출을 상징합니다. 이 공간은 어떤 의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까?

'객관의 공간'은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객관이라 명명되었지만, 실은 가장 주관적이며 폭력적인 시선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타인의 판단과 기록, 통제의 영역입니다. 림이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기록될 수 있는 대상'으로 환원됩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 예술 속 진실 추구가 어떻게 대상화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무대 위 침묵, 조명, 카메라와의 거리 모두 관찰의 권력과 노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호입니다.

카메라를 통한 중계는 감시의 메타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어떤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자 하셨습니까?

카메라는 우리가 흔히 '기록하는 도구'로 받아들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기계적 중립성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극에서 카메라는 고백, 행위, 망설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면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주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통해 관객은 '우리는 왜 남의 고통을 보고 싶은가?', '예술은 어디까지 타인의 상처에 개입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록은 기억이기도 하지만, 해석을 독점하는 권력이기도 하니까요. 그 권력을 누가 갖는지, 그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극의 주요 장면이 무대 바깥에서 벌어지고, 관객은 송출된 영상을 통해 사건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보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림의 내면이 실제 무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영상으로 지켜봅니다. 이 구조는 의도적용 '실제'와 '보이는 것'의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보이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정, 행동, 공통조차도 누군가에게 임하고 해석되기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림은 그런 구조 안에서 끝내 자신을 삭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구조 안에 남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예술가의 위치이자, 관객의 위치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이기 위한 삶에 익숙해진 시대,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의 순간에도 카메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속적인 촬영은 진실을 드러내는 장치입니까, 아니면 허상을 반복 재생하는 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치가 가진 이중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카메라는 끊임없이 기록하려 들고, 그 기록이 진실을 고스란히 담는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진실되지만, 어떤 순간은 그 진실마저 '연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결국 카메라는 증언자이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도구입니다. 림이 사라진 후 영상이 종료되지만, 카메라는 남습니다. 진실인지, 허상인지, 그것은 관객의 감각 속에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E. 생존과 타협: 현실과 예술 사이

비바는 현실을, 은은은 도덕을 말하고, 림은 그 사이에서 점점 소거됩니다. 연출팀께서는 이들 중 누구의 입장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세 인물을 창작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 개의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비바는 생존과 타협의 언어를, 도덕을 말하는 은은은 이상과 원칙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림은 그 사이에서 말문이 막힌 채, 감정과 판단이 동시에 닫힌 인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림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에서 그것이 제가 출연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항상 옳고 싶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림이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은, 저의 어느 지점의 포착이며, 정체성의 해체를 투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바는 박제 작업을 강요하고, 은은은 반대합니다. 림은 결국 작업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생존인지 체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바, 은은은, 림에게 예술은 여전히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술에 기대고 있습니다. 비바에게 예술은 통제 가능한 구조이고, 은은에게는 도덕의 경계선이며, 림에게는 배출구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술이 그들에게 일종의 '버티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버티기의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제처럼 굳어버리는 예술, 말하지 않음으로 도피하는 예술, 혹은 상처를 계속 꺼내보게 만드는 예술.

모두가 피로하고도 필수적인 것이죠. 저 역시 예술을 통해 겨우 버티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소진 상태를 솔직하게 그리고자 했습니다.

림은 선택의 기로에 반복적으로 서게 됩니다. 창작자로서 그는 현실과 윤리 중 어느 쪽과 타협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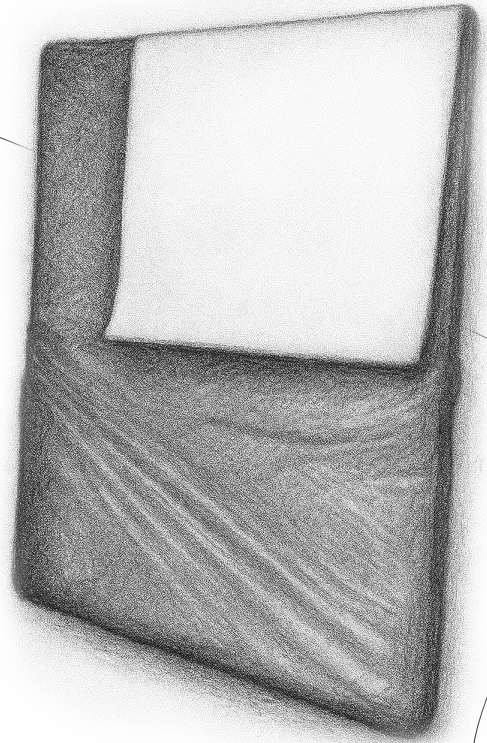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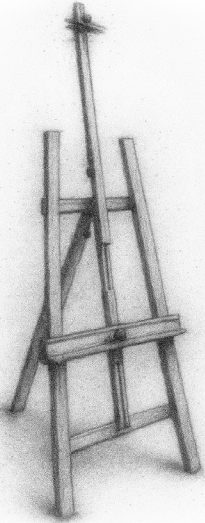
림은 타협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그는 선택을 유예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투영합니다. 그가 만든 작업은 현실의 요구를 따라간 것도, 윤리적 신념을 완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버릴 수밖에 없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유예의 상태가 현재 많은 예술가들의 정체성이자, 인간의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도덕도, 완전한 현실도 없이,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존재를, 타협보단 '부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림은 타협하지 않고 부유했기에 끝내 사라졌고, 동시에 남았습니다.

"예술이 굶주린 한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림의 대사는 절망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에 대한 냉소입니까?

이 말은 절망과 냉소, 그리고 깊은 자기 고백이 뒤섞인 대사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 누군가의 작품을 마주하고 있을 때보다, 창작이 끝난 밤과 새벽녘,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 있을 때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먹여 살릴 수 없지만, 그 허망함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만듭니다. 림의 말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붓을 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감정이야말로 가장 예술적인 상태라 생각합니다. 무력감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기려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충동. 이것이 인간의 고백이자, 욕망의 일부입니다.

* 맺음말 *

이 대화는 단순한 작업 해설이 아니다. 창작자가 느끼는 불확실한 윤리의 경계, 예술이 지닌 감정적 무게, 그리고 '버티기 위한 창작'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의식적 정화》는 무언가를 남기는 행위가 무엇을 지워내는가에 관한 질문이자, 결국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발화할 수 있을까. 혹은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어디서부터 비윤리적인 회피가 아닌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나. 'H8E'의 작업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와 《의식적 정화》는 각각 언어의 한계와 윤리적 갈등을 전면에서 드러내는 두 개의 독립적 무대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질문들이 끈질기게 흐른다. 언어와 소통의 실패를 '소극적 침묵'이 아닌 '능동적 멈춤'으로 재규정하고, 예술이 말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윤리의 몸짓을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 두 작업은 끝내 묻는다.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는 말의 기원이나 구조를 해석하려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발화의 조건과 말이 부정되는 순간들을 전시함으로써 언어를 그 자체로 문제화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말을 시도하지만, 그 말은 흔히 중단되거나 되뇌어지고, 반복되거나 무화된다. 그리고 그 파편화된 말들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 이들의 말은 '잘 말하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발화는 실수투성이이고, 선언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한 언어아말로, 언어의 정치성과 위계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실천이 된다. 말이 가진 순기능과 확장 그리고 역기능과 한계를 거침없이 오고 가며 적나라한 혼란을 의도한다.

무대 위에서 말의 '멈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멈춤은 단순한 침묵이나 중지의 상태가 아니라, 말 너머에 도달하기 위한 감각적 긴장으로 읽힌다. 말이 실패한 자리에서 몸이 대신 말하고, 시선이 언어가 되며 숨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 언어의 부재가 곧바로 침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존재 선언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불안정한 소통속에서 언어적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말의 확장과 실패 그리고 말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행위는 《의식적 정화》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다. 짧고 선명한 서사 안에서 중심이 되는 건 말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는 자연스레 휘발되고, 그 자리에 행동과 물성, 이미지와 몸의 감각이 남는다. 림이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 자기 고백과 생존, 사랑에 대한 복잡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 말은 실질적인 논의의 도구가 아니라, 종종 불충분한 설명으로 혹은 죄의식과 고백의 이중적 장치로 기능한다.

림의 주변 인물인 은과 비바는 각기 다른 윤리적 입장을 상징한다. 은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오만함에 저항하며, 반복적인 바닥 닦기를 통해 '닦을 수 없는 것', 즉 지워지지 않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 질문한다. 반면 비바는 생존과 현실, 효율성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예술과 윤리 사이에서 실용성을 우선시한다. 이 세 인물의 갈등은 단지 하나의 선택을 둘러싼 도덕적 충돌이 아니다. 예술이 삶과 죽음, 기록과 상품화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철학적 서사다.

말하기와 의식의 사이

극작가 구지수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와 《의식적 정화》 속에 있는 선언의 윤리

더 나아가 《의식적 정화》는 언어와 윤리의 문제를 본질적인 동물권과 생명권의 담론으로 확장한다. 말할 수 없는 생명, 언어만으로 방증할 수 없는 존재들-동물, 사체, 타자, 죽음-은 인간 중심의 언어 체계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 'H8E'는 그들을 쉽사리 말하려 들지 않는 것을 택한다. 대신 그 어긋남의 구조를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혼란, 폭력, 자기기만을 드러낸다. 까마귀는 그 자체로 말이 없지만, 까마귀라는 존재의 존재함이 무대를 지배하며 끊임없이 인간들을 말하게 만든다. 결국, 말들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잔해 속에서 정화 혹은 타협이라는 질문만이 남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의식적 정화》는 언어와 예술, 생명과 윤리, 침묵과 수행성이라는 다층적인 문제의식을 공명시킨다.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는 장면은 이 작품의 정점이다. 멸종위기종이라는 설정은 비인간의 절박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기록'과 '보존'이라는 행위가 갖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박제는 죽음을 박제하는 일인가, 생명을 기념하는 일인가. 림의 붓질은 그저 색을 입히는 작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자기 투영이며, 예술을 통한 윤리적 타협이자 기이한 속죄의식이다. 작품의 말미에 등장하는 '정화 의식'은 이 모든 감정과 갈등의 총합이다. 피와 물, 세수와 향, 조용히 떨어지는 물방울들로 구성된 이 의식은 희곡 언어라는 한정된 도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딜레마를 행위로 정화하는 장면이다.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와 《의식적 정화》. 이 두 작업의 중요한 공통점은, 언어를 단지 기호적 장치로서 소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H8E'의 언어는 말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삼는다. 오히려 그 불완전성을 인정했을 때, 말 안에 스며든 윤리적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선언은 권위를 가진 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로 존재한다. 말하는 자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말은 멈춘다. 하지만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다른 형식-움직임, 시선, 이미지, 침묵-으로 변환되어 무대 위에 남는다. 말의 한계를 드러내되, 그 한계를 넘어서 감각의 공간을 구성하며 관객과 소통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모든 반복은 단언컨대 '예술로서의 선언'이다. 그러나 선언은 영원히 완결되지 않으며, 멈춤과 함께 역설적으로 작동한다. 말의 행위가 아니라, 말하려는 몸의 움직임이자, 존재의 긴장을 드러내는 틈이다. 'H8E'는 이 틈 속에서 무한한 혼란을 말한다. 예술은 생명을 논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 생명을 기념할 수 있나. 말과 윤리는 어디서 교차하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극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 질문들은 여전히 미완이다. 답이 아닌 질문조차도 모호성을 띤다. 그러나 'H8E'는 그 미완의 시공간에서, 말의 실패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선언을 한다. 그 처절한 선언 끝에서 우리는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선언해야 하며,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

이 모호한 물음이 끝나는 자리에서, 모두의 선언은 다시 분명하게 시작된다.

《의식적 정화: 진실이라 믿던 것들의 거짓말》은 창작자가 마주한 불확실한 윤리의 경계,
예술이 짊어진 현실의 무게, 그리고 '버티기 위한 창작'에 대한 진술한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다원예술 공연 《의식적 정화》는 감정의 침묵과 윤리적 충돌을 반복 행위와 시각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관객에게 예술 행위의 윤리적 가능성과 한계를 감각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객 여러분의 인식과 반응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정
보는 공연 이후의 창작 연구와 관련 주제에 대한 심화 탐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는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극을 관람하신 후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 특정 장면에
대한 반응 등을 자유롭게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이야기는 향후 창작 작업 및 연구 자료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의식적 정화》는 전통적인 연극의 서사를 해체하고, 시각예술, 퍼포먼스, 사운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다원 예술 형식의 공연이다. 이 작품은 감정과 사유, 현실과 허상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충돌을 무대 위에 섬세하게 구성한다. 중심 공간인 림의 작업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감정의 압력과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심리적 지형으로 작동한다.

허보은 조명 감독

연극 <칼매기> <니나- 꺾여버린 날개를 위한 레퀴엠> <엘리자베따 밤> <울타리> <태양시장을 소개합니다> <그날의 타이밍> <안 줘! 못 줘!>
뮤지컬 <위대한 쇼맨> <와일드와일드>
년별 퍼포먼스 <스텝: 춤추는 발자국> 외 다수

김아란 음향 감독

연극 <아들에게> <공란> <더 나은 휴머니티> <의식적 정화>
콘서트 <북측우리음악축제> <신진별전> <어쩌다 어른> <ARTPIA FINAL> <우리 모모콘> <NPOP> <K-MEGA 콘서트 in 가오슝> 외 다수

하영하 (장하영) 사운드·그래픽 디자인·리서치

연극 <공란> <회의 간극> <더 나은 휴머니티> <의식적 정화>
다원예술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
애니메이션 <개미집> <mysophobia> <이 관계가 괜찮은건가?> 외 다수

민유월 (김진영) 리서치

연극 <공란> <회의 간극> <말하기 그리고 멈추기> <더 나은 휴머니티> <의식적 정화> 외 다수

배우는 말보다 침묵과 반복 행위의 리듬을 통해 감정을 수행하고, 미니멀한 오브제, 분할된 공간, 실시간 카메라와 조명은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한다. 창작진은 각자의 영역을 넘어 윤리적 딜레마에 공동으로 응답하며, 이 작업을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구조에 대한 리서치로 수행한다.《의식적 정화》는 질문 자체로 존재하는 공연으로, 감각과 사유가 교차하는 심리적 실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